

웨이오, 한국기업 진출 돕는다

뉴욕에 있는 한인 동포업체인 웨비오(www.wevio.com)가 한국 기업들의 해외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한다.

웨이오는 한국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는 2010년도 수출중소기업 글로벌 브랜드 육성사업 브랜드 해외마케팅 분야에서 사업수행사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출중소기업을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 실적과 컨설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사업수행사를 활용해 수출중소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개발된 브랜드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웨이오 이승원 대표는 “해외기업으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선정됐다”며 “그동안 웨비오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역량을 한국에서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